

# 느림도 빠름도 버렸을때 진정한 자유인



고구마를 가꾸고 있는 귀농인 윤덕영·김춘희 부부



수행은 '억지로' 느릴 필요도 '부자연스럽게' 빠를 필요도 없게 한다는 장휘옥(왼쪽)·김사업씨.



매일 새벽 조계사 법당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재상씨.



## 번잡한 도시 떠나 귀농한 윤덕영·김춘희 부부

도시인의 보람과 기쁨이 내 집 마련과 불어오는 적금통장이 라면, 귀농인의 그것은 무엇일까.

귀농인 윤덕영(39)·김춘희(41) 부부는 바로 다재다능한 자연인으로 변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농사일과 집수리는 기본, 비닐하우스 짓기, 가사도구 만들기 등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기에 그렇다. 개수대 배수구만 막혀도 수리공을 부르는 도시인들의 삶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지난 1999년 귀농 운동본부에서 만나 그해 부부의 연을 맺은 윤씨 부부. 도시의 번잡함을 털어 버리고 경기도 여주로 집 싸들고 들어 간 까닭은 자연과 더불어 마음 편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 함께 농사지며 자연에 순응

사실 귀농전 윤씨는 5년간 검도학원 사범으로, 김씨는 잘나가는 입시학원에서 10년 동안 강사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뭔가 허전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떻게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윤씨 부부는 농촌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월급이 적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평생 후회 없는 일이었다 싶었죠." 사계절 함께 일하면서 정답을 나누고, 자신들이 키운 유기농 야채로 밥을 먹는 전연의 삶. 육체적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바쁘게 사는 도시인들에게 윤씨 부부는 말한다. 가능하면 입은 다물고, 대신 눈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라고. 그리고 몸이 느림을 향할 때 정신은 더욱 깨어나고 삶의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여주=노병철 기자**



## 오곡도명상수련원 장휘옥 원장·김사업 법사

지난 2001년. 잘나가던 교수직을 내버리고 경남 통영 외딴 섬에 수행도량을 세운 장휘옥 오곡도명상수련원 원장과 김사업 지도법사. 4월 28일 수련원에서 만난 이들은 시곗바늘 '묵묵' 이다 빠져 있었다. 밥 짓고 청소하는 공양주 일로 '살 쥘 겨를이 없다'는 장 원장의 말이나, 햇볕에 검붉게 그을린 김 법사의 목덜미가 그랬다.

그럼 이들은 모든 알음알이를 거둬낸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 일본 도쿄대 인도철학·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동국대 교수로 지낸 장 원장, 서울대 영문과 졸업 후 대기업을 다니다 사표를 내던지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편입, 일본 교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금강대 교수 생활을 했던 김 법사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행'이었다.

"남에게든 내게든 '왜 자유롭지 못하고 괴로울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은 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부자연스러웠어요. 정신적 자유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했지요. 문제가 있을을 절감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 불교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장 원장의 진지한 설명이었다. 불교학 강의를 20년 넘게 해왔던 김 법사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유행어는 자신의 모습을 묵도하면서 본격적인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간 쌓아올린 학문적 기반과 안정된 조건들을 포기하고 이곳에 온 까닭이 엮보였다. 오직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에게 '느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여기서 살면, 정말로 느릿느릿 살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수행은 치열함에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

림도 빠름도'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아요. 수행은 모든 것과 하나가 되게 해요. 모든 것과 하나가 됐을 때 느리고 빠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김 법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빠르고 느림은 속도개념일 뿐, 집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억지로' 느릴 필요도 '부자연스럽게' 빠를 필요도 없다는 것이 김 법사의 조언이다.

"마치 물과 같아요. 높이고 그릇에 따라 완급과 모양이 있을 뿐이지요. 그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빠르기도 느리기도 살 수 있는 것이 불교적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매일 5시 새벽 예불, 한 번에 1시간 이상 네 차례 하는 좌선, 그리고 농사와 집관리 등 널려있는 수련원의 소소한 일들. 결코 이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스럽게 빨라야 할 때 빨라지고 느려야 할 때 느려지는 지혜를 수행에서 얻었기에 그렇다.

"순간순간 삶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유'라고 할까요. 윤행성 있는 이 여유 바로 느림과 빠름에 끄달리지 않게 하지요.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단순한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만이지요."

장 원장의 '느림'에 대한 생각. 이어 김 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으로 '느리게' 살아가는데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철저한 '자기부정'을 통한 아집과 욕망의 제거를 강조했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면 생활이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욕망의 대상이 전환됐을 뿐, 그 집착하는 마음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행이 중요하합니다. 나를 비우듯이 느림과 빠름도 버렸을 때,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이들은 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느림이든 빠름이든 결국 그것은 속도에 대한 상대적인 제감도일뿐, 문제는 자기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통영 오곡도=김철우 기자



##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이재상 과장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1초가 멀다하게 바뀌는 환율 전 광판 아래 외환딜러들의 눈빛이 매섭다. '속도'와 '경쟁'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숨 가쁜 하루를 사는 이들. 과연 '느림'이란 말이 이들에게 가능할까? 이곳에서 일하는 이재상 과장(49). 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입사 후 5년 동안 번개처럼 빨리 돌아가는 외환시장에 끄달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 십 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 집에 가셔도 늘 신경이 곤두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되돌아 볼 여력은 더더욱 없었다.

## 새벽 참선 통해 삶의 여유 찾아

치고 나오는 길에 새벽기도를 끝내고 법당을 나오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 과장은 그 후 1981년부터 24년 간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조계사 법당에 나와 108배를 올리러 시작했다. 또 2시간 넘게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부지런함 속의 느림'을 찾고자 한다. "하루 26시간을 살게 됐죠. 이렇게 정진하고 일터에 가면 맑은 마음으로 하루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뿐만이요. 업무 능력과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바쁜 와중에도 새벽정진을 꼭하는 것은 눈 코 들 새 없이 돌아가는 직장생활에서 하루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새벽정진 후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이과장. 그가 말하는 부지런함 속에서 '느리게 사는 삶'이 이뤄졌다. **노병철 기자**

# 동산사 지장보살 점안법회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봄꽃이 만발하고 대지에 푸르름이 생동감 넘치는 화창한 봄날에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에 부처님의 전법도량 동산사에서 무진장크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명한스님외 여러 스님의 어산법회 집전으로 지장보살님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미륵부처님이 오실때까지 중생구제를 부촉하신 지장보살님 점안식에 봄나들이 겸 나오셔서 복전을 일구시고 감로수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기 2549(2005)년 5월 일

**동산사 지장보살 점안식**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5월 11일 (음력 4월 4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동산사
- 증명법사 : 무진장 크스님
- 기도법사 : 명한스님 외(어산 법배 전수)

동산사 오시는 길: 당일 버스 운행  
 \*인천 : 송내남부역(08:00)  
 \*서울 사당역(09:00) - 양재역, 서초구청(9:30) - 하남시청(10:30) - 동산사  
 \*광주 : 동산사 불교차 수시운행 09:00 ~ 11:30  
 연락처 : 서울 민덕심 011-9037-0211 인천 법연행 017-336-3367  
 성남 진여심 019-388-8888 광주 동산사 031)766-5661  
 \*대중교통 : 강남역 - 광주행 시내버스 이용 - 광주에서 무갑리 오는 시내버스 이용  
 성남 분당 - 광주 시내버스 이용 - 광주에서 무갑리 오는 시내버스 이용  
 \*승용차 : 중부고속도로 광주IC 요금소 좌측 옆으로 우턴 - 무갑리 사거리  
 광주 - 양평 퇴촌 방면 - 무갑리 사거리 - 중화요리 건물 옆 직진 - 좌측 다리 - 무갑리 마을 끝

**<불사 종류 및 동참금>**  
 ▷ 지장보살 설판 1천만원 ▷ 후불행화 1천만원 ▷ 지장보살타자 5백만원  
 ▷ 지장보살방식 1백만원 ▷ 헌관 2백만원 ▷ 경상 1백만원 ▷ 향로 1백만원  
 ▷ 촛대 1백만원 ▷ 귀 5십만원 ▷ 불기 5십만원 ▷ 종경 5십만원

**<지장보살 점안식>**  
 ▷ 오전 11시 지장보살 점안식 및 크스님 법문  
 ▷ 오전 12시 30분 영가천도제 및 가족 영장소멸기도 임재를 봉행  
 ▷ 지장보살 봉안 점안식 봉행기념 조상영가 천도제 및 가족 영장소멸기도 임재를 봉행합니다.  
 ▷ 100일 영가천도기도 200,000원 ▷ 100일 가족영장소멸기도 200,000원

**<초파일 연등>**  
 ▷ 초파일 연등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 우리도 부처님같이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불자님들의 원력도량 영장소멸기도도량 동산사에 부처님오신날 등을 밝히시길 원하는 불자님들은 문의를 하시던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초파일 연등 동참금>**  
 ▷ 개인 1일등 2만원 ▷ 가족 1일등 3만원  
 ▷ 법당초파일 100일등 5만원 ▷ 법당1일등 10만원  
 108인등 2기를 봉안하여 매월 5,000원의 동참금으로 동산사에 불자님의 등불이 밝혀집니다.  
 불자님이 밝히신 인등은 꺼지지 않습니다. 인등회원을 발급하여 드려며 매일 축원 불공 올립니다.

• 지장보살 조성과 복장물에 동참하실 불자님은 5월 10일까지 복장 준비물이나 조성금을 아래의 주소나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812-21-0329-747 임옥상)  
 •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달마도를 무료로 법보시 하오니 달마대사의 위신력으로 경계고난에서 벗어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불자님들은 오셔서 복도 짓고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도 맛있게 드시고 전통 한방약차도 헌전 드시고 가세요.

**대한불교조계종 동산사 주지 법전 합장**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151번지 ☎ 031)766-5661~2